

제4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야고보서 말씀 묵상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상’이나 ‘허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아보여도 실속이 없다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속이 없는 믿음이 라면, 그것이 겉보기에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 주목합니다. 믿음이라고 말만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 오늘 우리의 삶에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동반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1. ()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온전함을 향한 도전’은 바로 ‘행함’ 즉 ‘삶’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2)

→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23-24)

→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형태만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희미하여 곧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는 ‘그 말씀에 대한 희미한 지식만 얻을 뿐 참된 진리를 경험하고 그 오묘한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심오한 진리와 은혜를 늘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행함에는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25)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즉 모양만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또는 말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15-21)

→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 정체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양이 아닌 이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알게 하는 ‘판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즉 그들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말만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말만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21)

→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십니다.

1) 은혜의 방편으로 ()

성도들 가운데 ‘말만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할 열매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일에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탁월함은 어차피 ‘달란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는 ‘신실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 되”
(신명기 7:9)

성도에게 ‘게으름’은 ‘악함’과 동격입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 두었던 종을 향해 주인이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26)

→ 주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게으름을 악함과 동일선상에 두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도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게으름을 ‘은혜’라는 방편으로 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날 문제지에 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또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신의 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불의’이며 ‘도둑질’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업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헌금을 많이 하며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2) ()의 영역과 ()의 영역

성도들 중에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은혜의 영역’과 ‘행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① ()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즉 ‘생명’과 연결된 영역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역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② ()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영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영역’들입니다. 즉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12)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영역을 간과하고 행함없는 말뿐인 삶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전히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의 영역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행함의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

그 첫 번째는 바로 ‘형제들과의 대화’에서의 모습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19-20)

‘듣기는 속히 하라’는 뜻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상대방을 존중하여 그의 말에 경청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 하라’는 뜻은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깨달지 못하고서 성급하게 말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뜻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19)

무엇보다 ‘성내기를 더디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32)

어떻게 하면 성내기를 더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9)

2) () VS ()

이어서 야고보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구분하여 강조합니다.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의 차이 역시 ‘행함’에 있습니다.

① ()

야고보는 헛된 경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26)

→ ‘헛된 경건’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 경건’을 말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경건한척 하느라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2)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16)

② ()

반면에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생활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참된 경건의 행동은 첫째, “()”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대표하여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의 돌봄을 늘 강조합니다.

“너는 껌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 굶에서 중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17-19)

두 번째 참된 경건의 행동은 “()”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 성도는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